

新安 海底 沈沒船 内の 中國 瓷器

李 德 金 · 蔣 忠 義 · 鄭 甲 堃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76년 韓國 新安 海底에서 沈沒船 1척을 발견했다. 보도에 의하면 침몰선 속으로부터 7,168점의 遺物을 건져냈다고 한다. 유물중에는 6,457점의 瓷器가 있는데, 그중 靑瓷가 3,466점을 차지하고, 白瓷는 2,281점, 黑釉瓷(天目釉) 117점, 鈎窯系瓷 79점, 기타 陶瓷器 574점이었다. 그밖에 金屬器物 230점이 있는데, 그중 靑銅器가 130점으로 靑銅製의 촛대 · 香爐 · 저울추등이 있고, 黃銅製의 鑄鋏과 鐵鍋가 있다. 銅錢은 33꾸러미로 모두 10만6천個였다. 기타 448점에는 돌절구 · 漆器 · 부채 · 水晶珠 · 바둑판 · 胡椒 · 桂皮 · 나무상자 등등이 있었다. 上述한 유물들은 引揚者의 추산에 의하면, 기껏 침몰선 내 화물의 1/3을 차지할 뿐, 아직도 2/3의 화물과 船體는 여전히 水深 20m의 해저에 있다고 한다.

6,457점의 瓷器 중에서 3점이 한국의 瓷器인 외에는 나머지 전부가 중국의 瓷器이다. 이 瓷器들의 발견은 사람들의 주의를 흥미를 일으켰다. 아래에서 우리는 이 瓷器들의 제작년대 및 그것들이 소속한 窯系와 窯口에 대해 약간 분석하겠는데, 實物을 보지 못하므로 단지 이미 본 사진관에 보이는 瓷器의 造型과 外觀에 따라 중국내에서 발견된 古代瓷器와 對比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침몰선 내에서 발견된 瓷器는 窯系로서 구분하면, 龍泉窯系의 靑瓷, 景德鎮窯系의 影靑瓷(靑白瓷라고도 한다), 樞府瓷와 白瓷, 磁州窯系의 白釉赭彩, 白釉黑彩와 黑釉瓷, 吉州窯 瓷器, 建窯의 黑釉瓷(天目瓷라고도 한다), 鈎窯系의 鈎釉瓷 및 醬褐色 · 黃褐色 혹은 黑色釉의 粗瓷등이 있다. 그중 수량이 가장 많은 것은 龍泉窯系 靑瓷와 景德鎮窯系의 影靑

瓷·樞府瓷와 白瓷이다.

1. 龍泉窯系の 靑瓷

龍泉靑瓷의 주요산지로는 浙江省 龍泉縣이 중심이다. 元代에 이르러서는 龍泉縣의 大窯 이외에도 慶元縣의 竹口·楓堂 일대로 확대되고, 특히 龍泉縣 동부에서 麗水縣의 甌江 兩岸까지는 窯址가 더욱 밀집해 있다. 게다가 雲和縣과 甌江 하류의 永嘉縣에서도 窯址가 발견 되었다. 총수가 150여개소 이상에 달한다.¹⁾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기로 前代를 초월한다. 龍泉窯가 甌江 兩岸으로 발전함으로 인하여 운송·판매는 크게 편리해 졌고, 특히 宋代이래 溫州에 市舶사를 둔 이후부터는²⁾ 더욱 龍泉瓷器의 외부 판매를 위해 극히 유리한 조건이 제공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龍泉窯의 발전을 더욱 촉진했다.

浙江省 博物館은 龍泉窯址의 분포에 대하여 여러차례의 조사를 진행 하고, 아울러 大窯等處의 窯址를 발굴해서, 우리들에게 각 시대의 龍泉窯 產品의 발전序列 및 그 특징에 대해 비교적 명료한 인식을 가지게 했다. 근년래로 각지의 古墳墓속에서도 宋·明간의 적지 않은 龍泉窯瓷器를 출토했으며, 특히 元 大都의 발굴은 풍부한 元代中晩期の 龍泉

1) 龍泉窯 및 그 출토된 瓷器는 朱伯謙, <龍泉靑瓷簡史> (未刊稿); 浙江省輕工業廳, 浙江省文物管理委員會, 故宮博物院 合編<龍泉靑瓷>, 文物出版社, 1966年; 朱伯謙·王士倫, <浙江省龍泉靑瓷窯址調查發掘的主要收穫>, <文物> 1963年 1期 27頁; 金祖明, <龍泉溪口靑瓷窯址調查記略>, <考古> 1962年 10期 535頁등을 보라.

2) 溫州 市舶務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未詳이다. 南宋 紹興 初년에 이미 溫州 市舶務가 있었으니, <宋會要輯稿> 職官 44의 15 “紹興 3年 6月 4日戶部官”: 同書 職官 44의 24, “紹興 15年 12月 18日詔” 兩條를 보라. 이 市舶務는 慶元(1195년) 이후에 폐지되었는데, 寶慶 <四明志> 卷 6 참조. 元初 溫州에 市舶司를 다시 설립하여, 곧 慶元(明州)에 병합되었으니, <元史·食貨志 2> 市舶條를 보라. 그런데도 溫州의 항구는 폐기하지 않았으니, <眞臘風土記>의 著者 周達觀은 곧 元貞元年(1295년) 溫州에서 출항한 것이다.

窯 瓷器의 표본을 제공하여,³⁾ 우리들이 침몰선 내의 龍泉靑瓷를 분석할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침몰선 내의 龍泉靑瓷의 器形은 복잡하여, 이미 일상생활용의 碗・高足碗・鉢・盞托・盤・洗・罐・執壺・經瓶・盒・藥碾・硯滴等 器物이 있고, 또 진열용의 瓶・爐・花盆・花插과 菩薩像등도 있다. (圖版二, 6)

침몰선 내의, 口唇이 둥글고 腹部가 비스듬하며 圈足이 작은 碗은 腹壁 내외에 모두 紋飾을 하여, 外壁엔 弦紋・蓮瓣紋, 內壁엔 蓮花・梅月・纏枝牡丹등의 紋飾이 있고, 어떤 碗內엔 “上色靑卮” 4자의 먹글씨가 있었다. 弦紋은 일반적으로 口沿 外部에 장식되어 3,4개의 평행선을 긋는데, 弦紋 위에는 等距離로 3개의 짧고 비스듬한 線紋을 새긴다. 碗腹 外壁의 蓮꽃잎은 가늘고 긴 형태를 나타내고, 어떤 것은 菊花꽃잎 비슷하다. 圓唇盤 위에도 이같은 紋飾의 특징이 있다. 이같은 특징이 있는 瓷器는 元代 龍泉窯의 典型的 器皿이며, 龍泉窯址와 元 大都遺址에서는 일상 보는 것이다. (圖一; 圖版二, 3-4; 三, 1-2)

침몰선 내 高足碗의 器型에는 兩種이 있으니, 한 가지는 나팔형 高圈足이다. 이런 器形은 元 大都 遺址에서 이전에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또 한 가지 碗은 口唇이 둥글고 腹部는 깊은데, 腹壁이 조금 부풀고, 高圈足의 허리는 더욱 가늘다. 이런 형식의 碗은 龍泉窯址에서 흔히 보게 된다. (圖版三, 3-4)

침몰선 내 斂口鉢의 外腹壁 상에는 重疊된 蓮瓣紋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것은 元代 中晩期에 출현한 紋飾으로, 龍泉窯址와 元代 墳墓 중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北京 元 皇慶3년墓에서 출토된 斂口鉢 같은 것은⁴⁾

3) 中國科學院 考古研究所, 北京市文物管理處 元大都考古隊, 〈元大都的勘察與發掘〉, 〈考古〉 1972年 1期 19頁; 〈北京後英房元代居住遺址〉, 〈考古〉 1972年 6期 2頁; 〈北京西緣胡同和後桃園的元代居住遺址〉, 〈考古〉 1973年 5期 279頁; 張寧, 〈記元大都出土文物〉, 〈考古〉 1972年 6期 25頁. 本文중에 언급한 元 大都 출토의 器物은 상술한 각 논문이외에도, 〈元大都發掘報告〉 (未刊)를 함께 보라.

4) 北京市出土文物展覽展品. 이번 展覽의 情況에 관해서는 魯瑛・葛英會, 〈北京市出土文物展覽巡禮〉, 〈文物〉 1978年 4期 23頁을 보라.

즉 그 一例이다. (圖版四, 1·2)

침몰선 내 盂盤形의 盞托도 元代에 유행한 양식인데, 元 大都 遺址와 龍泉窯址에서 모두 발견된다. 그것들은 침몰선 내에서 나온 형식과 비슷하다. (圖二)

침몰선 내의 盤의 형식은 口唇이 둥글고, 口沿이 곧은 것과 구부러진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큰 盤의 구부러진 口沿에는 變形을 방지하기 위해 연 꽃잎등의 형상을 만들었다. 盤의 장식 수법으로는 刻花, 印花, 貼花가 있다, 무늬로는 纏枝牡丹·菊花·蓮花·卷草·龍·鳳·雙魚 등이 있다. 龍·鳳·雙魚등과 같은 몇 무늬는 비록 南宋시대에 이미 출현했으나 元代에 이르러서야 아주 盛行하게 되었다. 더우기 침몰선내의 어떤 盤의 속이나 밑바닥에는 먹글씨나 새긴 문자가 있었으니, 이를테면 盤 밑바닥에 “使司帥公用”이라 새기고, 속에는 □盤□□등 字를 먹으로 쓴 것이다. 이러한 盤의 형식과 紋飾은 元 大都 遺址와 龍泉窯址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河北 磁縣 南開河村의 元代木船 속에서 발견된 대량의 瓷器 가운데 바로 龍泉蓮瓣盤이 있었다. 磁縣에서 발굴한 木船은 “彰德分省 糧船”이고, 배의 연대는 틀림없이 元 至正 12년 (1352년) 이후이다.⁵⁾ (圖版一, 1-4: 五, 1-4)

침몰선 내의 蔗段洗(혹은 菊花洗, 葵口洗라고도 한다)는 口部에 꽃잎 모양을, 腹壁에도 꽃잎 형태를 만들고, 外壁 중간부분에는 한바퀴 모난 돌기(凸稜)가 장식되었다. 이같은 洗(세면기)는 元代의 전형적 器形으로, 元 大都 遺址와 龍泉窯址에서 늘 보는 것이다. (圖版二, 1-2)

침몰선 내엔 또한 龍泉 靑瓷罐도 나와 있는데, 그 중 최대의 것 1점은 爪稜紋을 띠었으며, 위에는 연꽃잎 모양 뚜껑이 있고, 밑바닥 안에는 釉藥을 발랐다. 다른 1점은 밑바닥 발(底足)위에 “元字染拾參號並(押)”이란 7字의 먹글씨가 있다. 罐의 밑바닥 발의 胎가 드러난 곳은 朱紅色을 띠니, 즉 이른 바 “朱砂底”이다. “朱砂底”는 胎 중의 비교적

5) 磁縣文化館, 〈河北磁縣南開河元代木船遺址發掘簡報〉, 〈考古〉1978年 6期,

鐵을 많이 함유한 紫金土가 酸化焰을 통해 굽고 冷却된 후, 胎中の 酸化鐵이 2차로 酸化하여 형성된 것이다. 元 大都 遺址와 龍泉窯址의 많은 器物에는 모두가 이같은 특징이 있다. (圖版 六, 3-5)

침몰선 内の 龍泉瓷器로 비교적 특수한 것은 帶流의 洗(혹은 匣라고도 한다), 盤 중심에 梅花가 붙어 있는 盤과 小罐등에 있어서, 규울 있게 분포된 褐色點을 釉 안에 넣은 것이다. 이같은 釉藥 바르는 수법은 元代 龍泉窯製 瓷器의 工人이 東晉 青瓷의 褐色彩를 넣는 처리법을 흡수하여 창조한 것이다. 龍泉窯址 중에는 비록 출토 수량은 많지 않으나, 그래도 元代 특유의 釉色 장식이다. (圖版四, 4)

침몰선 내 龍泉青瓷瓶의 종류는 매우 많아서, 魚耳瓶, 鳳耳瓶・纏枝雲紋象耳瓶, 盤口長頸瓶, 五管瓶(花插이라고도 한다), 白菜瓶(곧 菱花形環耳瓶), 옛것을 본뜬 尊形瓶, 貫耳瓶, 蒜口瓶, 雲龍紋瓶, 膽瓶, 帶座小瓶 및 腹身部에 纏枝花卉(草木)을 장식한 大花瓶 모두 10여종이다.

鳳耳瓶과 魚耳瓶은 器形이 비슷하나, 頸部에 하나는 雙鳳耳를 장식하고, 하나는 입을 벌리고 튀어오르는 雙魚耳를 장식했으니, 이같은 器形은 옛것을 본뜬 貫耳瓶, 尊形瓶, 五管瓶, 雙耳銜環牡丹紋瓶 등과 함께 龍泉窯址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南宋 때부터 대량생산하게 되고, 元代에 南宋의 風格을 이어 계속 구워내서, 당시에 환영받았던 器皿이니, 침몰선 내에 발견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사정이다. (圖版二, 5)

纏枝花卉 大花瓶의 무늬 특징은 頸部에 弦紋을 장식하고, 또 돌기한 花草 한 그루를 장식한 것도 있으며, 腹部에 纏枝牡丹紋 혹은 纏枝蓮花紋을 새기고, 下腹部에는 가늘고 긴 蓮瓣紋으로 떠받쳤다는 것이다. 花瓶은 形體가 高大하고(침몰선 내 最高의 것은 64cm이다). 胎壁이 厚重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大型 器物은 龍泉窯에서 元代에 비로소 출현하는 產品이다. 元 大都 遺址와 內蒙古 呼和浩特市 교외 白塔村 지하창고 遺址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內蒙古에서 출토된 3점의 花瓶은 “己酉年”이라 기록한 鈎窯 香爐와 함께 나온 것이다.⁶⁾ 이 “己酉年”은

元至大 2년(1309년)임에 틀림없다. 龍泉窯의 大花瓶은 이 “己酉年” 香爐와 연대 차이가 그리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圖版 六, 1-2).

또 玉壺春瓶이 1점 있는데, 몸통 전체에 돌기 무늬가 장식되고, 頸部에 細弦紋 3줄이 있으며, 腹部에는 雲龍紋, 밑바닥 가까운 부분엔 海濤紋이 있다. 그 器形·무늬는 北京 海澱 北安河의 元 墳墓 속에서 나온 龍泉 靑瓷瓶과 완전히 같다.⁷⁾ (圖版 4, 4-5)

침몰선 내의 香爐의 종류도 몹시 많아서, 弦紋三足爐·葱管足爐·鬲式爐·牡丹紋獸足爐·八卦鼎式爐·奩耳爐·蓮花紋六角爐·菊花 혹은 纏枝牡丹紋 奩式爐 등등이 있다. 鬲式爐는 古銅器를 본뜬 것이다. 弦紋三足爐·八卦鼎式爐·菊花 혹은 纏枝牡丹貼花 奩式爐는 형식이 비슷한데, 역시 옛것을 본뜬 器形이다. 이런 형식의 爐는 南宋때에 이미 출현하고 元代에 계속 구워서, 龍泉窯址·元 大都 遺址와 元代 墳墓내에서 모두 흔히 보는 器物이다. 福建 泉州의 元至大 3년(1310년)墓 속에서 출토된 貼花奩式爐 2점⁸⁾은 침몰선 내의 奩式路와 風格이 일치한다. (圖版 四, 3; 七, 1-3).

상술한 침몰선 내에서 발견된 龍泉 靑瓷器의 형식·무늬로부터 분석하면, 대부분이 龍泉縣 大窯의 產品임에 틀림없으니, 이를테면 碗·盤·鉢·罐·瓶과 執壺등, 더우기 그 高大·厚重大花瓶·大罐, 口徑이 큰 盤등 器物은 大窯에서 생산한 것이 비교적 많다. 龍泉縣 大窯의 元代 產品의 특징은 胎의 質이 精細·堅固하고, 胎의 色이 백색 속에 청색이 감돌며, 圈足은 “朱砂底”를 나타내고, 胎壁은 다듬어서 매끈매끈하며, 造型이 단정·대범하고, 구부러진 곳이 선명하고, 圈足壁이 수직

6) 內蒙古博物館 李作智, 〈呼和浩特市東郊出土的幾件元代瓷器〉, 〈文物〉 1977年 5期 75頁.

7) 北京市出土文物展覽展品. 또 〈文物〉 1978年 4期 23頁을 보라.

8) 陳家楫, 〈福建省南安潘山鄉發現元代骨灰墓葬〉, 〈文物參考資料〉 1954年 12期, 183頁. 또 〈龍泉靑瓷〉 圖版 23頁(下), 文物出版社, 1966년을 보라.

이며, 발 밑바닥은 평평하다는 것이다. 元代 龍泉窯 瓷器는 일반적으로 釉藥을 한번 바르는데, 釉層이 얇고 透明性이 강하며, 청황색을 띠고, 또 粉靑과 豆靑색을 띠는 것도 있어, 色調가 선명하고 유희적이었다. 킴물선 내의 다른 일부 靑瓷器는 溪口窯의 產品인데, 이를테면 環耳瓶・卷唇小口藥罐・雲龍紋小壺・貼花爐등이다. 이같은 器物의 장식 특징은 보편적으로 堆貼 혹은 凸雕 花紋을 사용하는 것이다. 元代 龍泉窯 產品의 이런 특징은 元 大都 遺址와 元代 墳墓・지하창고 속에서 출토한 靑瓷器와 일치하는 것이다. 킴물선 내에서 발견된 龍泉靑瓷器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을 갖추고 있다. (圖版 十一, 4)

2. 景德鎮窯系의 影靑瓷・樞府瓷 白瓷

景德鎮窯는 중국 古代의 유명한 窯의 하나이다. 唐・宋시기, 景德鎮瓷器는 이미 중요한 수출상품이었다. 元代에는 南宋의 기초위에 瓷器 생산이 더욱 발전하고 窯址의 분포 범위는 매우 광범했다. 기재된 바에 의하면, 官窯・民窯는 3백여座에 달했다. 元代에 景德鎮은 전국의 瓷器業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으며, 당시 생산된 瓷器는 국내의 시장에 널리 팔렸다. 中共이 成立한 후에 景德鎮市 및 그 주위에서 발견된 唐으로부터 明에 이르는 窯址는 景德鎮陶瓷館의 통계에 의하면 이미 40여개소가 있었다.

킴물선 내의 影靑瓷와 白瓷는 대부분 景德鎮窯系에 속하는 것이다.⁹⁾ 器形의 종류는 매우 많아서, 碗・高足碗・盤・執壺・罐・瓶・經瓶・爐・硯滴・枕 등등이 있었다.

킴물선 속에서 나온 影靑釉와 白釉의 碗・高足碗・盤은 腹壁 內의에 雲龍紋・魚紋・鳳紋・葉紋・菊花紋 및 蓮花・梅花瓣・纏枝牡丹등 紋飾

9) 이미 발표된 사진관에 의거해서는, 整理者가 影靑・白瓷와 樞府釉瓷器에 대하여 식별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이 3자간에 때로는 混淆가 있었다. 우리는 비록 사진상의 특징에 의거하여 조금 改訂을 하더라도, 實物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명시할 수 없으므로, 影靑과 白瓷를 한꺼번에 서술할 수 있을 뿐이다.

으로 장식되었다. 어떤 白釉碗안에는 “玉出崑山”의 4字가 찍혀 있고, 또 碗 안에 “上色白甌” 4字의 먹글씨도 있다(圖三). 주의할 만한 것은 碗과 盤이 모두 芒口鑲銀鈎이며, 이것은 명백히 覆燒된 瓷器이며, 景德鎮窯·仿定窯의 產品이다. 그러나 景德鎮窯의 覆燒器物은 元代에 이미 점차 淘汰되었다. 浙江의 江山·泰順, 江西의 吉安·贛州·樂平, 福建의 光澤·閩清·德化·同安·泉州등지에서 모두 影靑瓷를 구운 宋·元 窯址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어떤 窯址에서는 아직도 覆燒한 影靑芒口瓷器가 있음도 발견되었다.¹⁰⁾ 킴물선 내의 影靑芒口瓷器는 이곳의 產品이 아닐까?(圖版 三, 5-6; 九, 1-4)

킴물선 내의 影靑執壺에는 葫蘆形·扇方形 및 瓶形이란 여러가지 帶蓋의 형식이 있으니, 어떤 것은 壺 손잡이가 龍形을 이루며, 帶蓋執壺의 壺身은 玉壺春瓶과 같고 腹部엔 鳳紋이 찍혀 있으며, 頸部엔 蕉葉紋, 蓋面에는 蓮瓣紋이 있다. 어떤 것은 壺의 腹部에 回紋·纏枝花卉紋이 찍혀 있다. 葫蘆形 執壺는 外形이 아름답게 보이는데, 釉色상에도 創意가 있고, 瓷器제작 工匠이 靑白色 釉面상에 구울있게 褐色 斑點을 넣었다. 童子가 소(牛)를 탄 硯滴같은 器物에서도 이같은 장식이있었다. 元 大都 遺址에서 출토된 遺物 중에서도 이런 장식을 특징으로 하는 小罐과 葫蘆壺가 있다.(圖版 八, 1-3)

킴물선 내 影靑瓶의 器形에는 또한 經瓶·玉壺春瓶·雙耳瓶·帶座小瓶등이있으며, 雙耳의 형식으로는 雲形·魚形·如意形·長方形등 여러가지가있다. 北京 豐臺 瓦窯村의 元代 塔基 내에서 출토된 雲龍紋 影靑玉壺春瓶¹¹⁾ 1점은 器形이 킴물선 내에서 나온 玉壺春瓶과 같으며, 頸部の 무늬가 모두 蕉葉紋이고, 腹部 무늬는 킴물선 내에서 나온 影靑經瓶·影靑罐과 같으니, 즉 腹部 가운데에 雲霧속에서 飛翔하는 游龍 한 마리가 있고, 밑바닥 가까운 부분엔 寬蓮瓣紋으로 떠받친다. 이러한 紋

10) 馮先銘, 〈新中國陶瓷考古的主要收穫〉, 〈文物〉1965年 9期 26頁.

11) 北京出土文物展覽展品, 또 〈文物〉1978年 4期 23頁을 보라.

飾의 風格은 또 元 大都 지하창고 遺址에서 출토된 青花大碗 위에 그린 무늬와 相似하다. (圖版 十, 1-5; 十一, 5-6)

침몰선에서 나온 影靑瓷로 가장 걸출한 1점은 人物瓷枕이다. 그것은 한개의 抹角長方形의 밑 받침대 위에 對襟·長衫을 입은 婦女 하나를 塑造했는데, 왼손으로 머리를 고이고, 밑 받침대 위에 모로 누웠으며, 婦女 몸 뒤에는 한 그루 象樹 줄기 형태의 기둥이 있어 타원형의 枕面을 지탱한다. 枕面의 양단은 약간 높고, 중간은 조금휘어서 人物 위에 덮히며, 枕面엔 卷枝紋을 새겨 전체가 한 그루 큰 연잎같다. 造型이 특수하고, 雕塑의 線은 柔和·流暢하여, 景德鎮 瓷器 제작 工匠의 걸출한 예술작품이다. 흥미있는 것은 江蘇 鎮江에서도 유사한 瓷枕이 발견되었다.¹²⁾ 枕面은 비록 殘缺되었으나 밑 받침대 위에 모로 누운 對襟·長衫을 입은 婦女는 형상이 침몰선에서 나온 瓷枕과 서로 같고 더욱 秀麗하다. 美國人 콕스(W.E. Cox)著 <陶器와 瓷器> (Pottery and Porcelain) 136면에 뉴욕미술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이 收藏한 影靑人物瓷枕 사진판 하나가 있는데, 그 형식이 침몰선 및 鎮江市에서 나온 瓷枕과도 서로 같다. (圖版 十二, 1-3)

이 밖에 침몰선 내의 影靑鳳形硯滴, 影靑雙耳三足香爐등 器物은 元 大都 遺址에서 출토한 影靑器와 器形·紋飾상에서 모두 비슷한 점이 있다(圖版 十二, 1-3).

元代 景德鎮窯가 생산한 影靑瓷와 白瓷에는 이미 南宋의 風格·특징을 계승한 胎가 얇고 白色이며, 흙의 質이 純細 堅實하고, 釉가 두텁고 기름지며, 透明度가 강하고, 제작이 바르고 정제되며, 質量이 精美한 器物이 있었고, 또 元代에 비로소 출현한 몹시 두텁고 朴實한 대형 器物이 있어, 胎가 두텁고, 質이 비교적 조잡하며, 胎의 색이 灰白색이고, 釉層이 얇고 고르지 못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제작이 별로 정제되지 못하고, 質量이 좀 고르지 않은 小型 器物들이 출현했

12) 肖夢龍, <鎮江市博物館藏宋影靑瓷枕>, <文物> 1978年 11期, 82頁 圖版八, 1.

다. 킴물선 내 대부분의 影靑瓷와 白瓷은 이러한 특징을 갖춘 것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우리는 킴물선 내의 影靑瓷와 白瓷가 대부분 틀림없이 景德鎮窯의 產品이라고 생각한다. 中共政權 成立후 景德鎮窯를 제외하고, 江西·浙江·安徽·福建·廣東·雲南등 省에서 대략 30개처의 影靑瓷를 생산한 宋·元窯址를 전후해서 발견했다. 이러한 窯址에서 출토한 影靑瓷는 胎質에 조잡·精細한 것, 두텁고 얇은 것이 모두 있고, 釉色은 짙고 얇은 것이 한결같지 않았는데, 어떤 것은 靑白색 釉가 얇은 灰色을 띤다. 킴물선 내의 影靑瓷에 이러한 각 窯址의 產品이 있는지 없는지는 實物을 보지 못한 한은 잠시 推斷을 미루겠다.

킴물선 내에서 나온 腰部가 구부러지고 腹部가 곧은 碗은 元代 景德鎮窯의 전형적 器皿으로, 통상 “樞府碗”이라 불린다. 碗 안에는 무늬가 가득 차 있는데, 일반적으로 圖案式의 纏枝牡丹紋·蓮花紋 혹은 菊花瓣紋이다. 釉色은 影靑釉과 조금 같지 않은 점이 있고, 일종의 乳濁靑釉이며, 또 月白色釉 혹은 “樞府釉”라고도 한다. 이같은 釉는 石灰石의 함유가 비교적 적어서(약 10%), 비교적 높은 온도가 들어야 겨우 구워낼 수 있으니, 이로 인하여 透明度가 낮고, 釉層은 두터우며, 紋飾을 刻印하는 明晰度에 영향을 준다. 킴물선 내의 樞府釉 瓷器에는 口部가 넓고, 腹部가 비스듬한 高圈足의 碗과 圓唇盤도 있다. 이러한 碗·盤의 器形·紋飾은 元 大都 遺址에서 대량 출토된 “樞府”碗·盤과 磁縣의 元代 木船 속에서 나온 “樞府” 2字를 지닌 碗과 서로 같은 것이다.(圖四, 1·2; 圖版八, 4-5)

“樞府”器는 景德鎮窯의 產品이며, 근년에 이미 樞府器를 구워 만드는 湖田窯를 발견했다. 景德鎮陶瓷館의 연구에 의하면, 樞府器는 乳濁狀의 靑釉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釉 안의 酸化칼슘 含量이 적어서, 高溫하에서 쉽사리 흐르지 않고 粘度가 커서, 窯안에서 구울 때, 높고 두터운 墊餅支燒를 거듭 사용할 수 없고, 沙粒墊燒를 사용하니, 이것이 產品으로 하여금 窯室 속에서 쌓이는 密度를 크게 하여 窯室의 세로 공간을

결약하고, 굵는 범위를 늘려, 물품의 완성율이 높고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器型상에서도 진보되어, 胎壁을 더 두터이 하고, 밑바닥 발의 足壁도 더 두터이 해서, 瓷器가 완성되었을 때 圈足이 모래 속에 빠지지 않게 한다. 더우기 외부 판매 때 장거리 운수에도 적합하니, 이것이 景德鎮窯의 瓷器제조업의 또 한 가지 발전이다. 景德鎮窯가 樞府器를 대량으로 구워 만든 것은 元代 中晩期에 工藝상의 진보로 樞府器가 국내외에 널리 팔리게 된 때문이니, 元 大都 遺址와 磁縣 木船 속에서 대량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란·탄자니아·이집트·필리핀 등과 같은 세계 각지에서 모두 元代 樞府器가 있음이 발견되었다.¹³⁾ 그러므로 침몰선 속에서 발견된 樞府器들은 조금도奇怪的 것이 아니며, 이런 樞府器의 窯口는 景德鎮 湖田窯임에 틀림없다.

3. 기타 窯系

침몰선 내 기타 窯系의 產品은 많지 않은데, 建窯의 黑釉(天目釉)碗·小罐, 吉州窯의 白釉黑彩繪花의 表頸膽瓶등이 있다.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白釉赭彩와 白釉黑彩의 罐 2점 및 黑釉雙耳小口罐 1점인데, 元 大都 遺址 및 河北 彭城·河南 鶴壁集등지 磁州窯系 窯址 속에서 출토된 器型과 아주 비슷하며,¹⁴⁾ 釉色·紋飾 題材·繪畫枝法도 모두 가까워서, 우리는 이 몇가지 器物이 磁州窯系의 產品이라고 생각한다. 口沿部 변두리엔 波濤紋 장식이 빙 둘러있고. 밑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藍白色 乳濁釉의 花盆은 龍泉窯의 花盆 형식과 비슷하다. 그것은 이같은 釉色을 갖춘 鼓釘紋 三足洗, 執壺등과 함께 모두 鈞窯瓷器이며, 河南 禹縣 鈞窯 遺址¹⁵⁾와 元 大都 遺址에서 모두 출토되었다.(圖版 十二, 4; 十三, 1-6; 十四, 3-5)

13) 三上次男, 〈陶瓷の道〉 1977年版,

14) 李輝炳, 〈磁州窯遺址調查〉, 〈文物〉 1964年 8期, 37頁. 河南省文化局文物工作隊, 〈河南省鶴壁集古代瓷窯址發掘簡報〉, 〈文物〉 1964年 8期, 1頁.

15) 河南省博物館 趙青雲, 〈河南禹縣鈞台窯址的發掘〉, 〈文物〉 1975年 6期, 57頁.

침몰선 내에는 또 粗瓷器들도 있는데, 이러한 瓷器의 胎質은 곱지 않고, 氣孔이 많으며, 瓷器 표면은 명백한 施回 흔적을 지니고, 위에는 엷디엷은 1층의 醬褐色 혹은 黑色 釉를 바르고, 器形으로는 平沿罐·雙耳小底長腹罐 등이 있으며, 이같은 粗瓷器는 元 大都 遺址에서 이전에 대량으로 출토되었고, 河北 磁縣의 元代 木船 속에도 발견되었으며, 당시 민간에서 常用한 器物이다. 이러한 器物을 구운 窯址는 河南·河北·山東·山西·江西·浙江·廣東·福建 등지에 분포된 허다한 民窯이다. (圖版 十四, 1·2·6·7)

4. 침몰선 내 瓷器의 시대와 침몰선의 연대

위에 서술한 바를 종합하면, 침몰선 내의 중국 瓷器는 중국내에 출토된 元代 中晩期의 瓷器와, 造型이나 紋飾을 막론하고 대단히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침몰선 내의 중국 瓷器의 연대가 元代 中晩期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元代 大德(14세기 초)이후의 産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론의 근거에 관하여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약간의 분석을 했으며, 지금 아래와 같이 거듭 총괄해 본다.

(1) 內蒙古 呼和浩特에서 발견된 至大二年銘의 瓷器가 있는 지하창고에서 출토한 龍泉青瓷大花瓶, 福建 泉州에서 발견된 至大三年墓 속의 龍泉青瓷貼花三足奩式爐, 北京에서 발견된 皇慶三年墓 속의 龍泉雙魚斂口鉢, 이러한 명확한 연대가 있는 瓷器는 모두 침몰선 내의 同類의 瓷器와 서로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河北 磁縣에서 발견된 “彰德分省 糧船” 내의 瓷器는 至正12년 이후의 것이고, 그중 龍泉青瓷蓮瓣盤·景德鎮樞府碗·影青高足碗 및 약간의 粗瓷罐등도 침몰선 내의 同類의 瓷器와 비슷하다.

(3) 北京 元 大都의 住居遺址에서 출토된 각종 瓷器는 침몰선 내의

수 많은 瓷器와, 특징이 서로 같을 뿐아니라, 또 몇 細部 紋飾에서도 완전히 동일했다. 이러한 住居遺址는 모두 明代 北京의 北城 담벽 아래 놓여 있었다. 明代의 北城 담벽은 洪武元年(1368년) 8월에 건설되었으며, 이로 보아 이런 遺址 속의 瓷器의 연대 下限은 모두 洪武元年 이전인 것이다. 發掘者의 연구에 의거하면, 元 大都의 住居遺址 속에서 출토된 瓷器는 절대부분이 元代 中晩期에 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침몰선 내 瓷器의 연대를 推斷하는 데에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

(4) 침몰선 내에서 景德鎮窯의 “樞府” 釉瓷器를 발견했다. 근년 이래 景德鎮陶瓷館의 연구에 의거하면, 景德鎮 “樞府” 釉瓷器는 元代 中晩期에 출현한 것이다. 元 大都 住居遺址와 磁縣의 元末 糧船에는 모두 수많은 “樞府” 釉의 일용瓷器가 있고, 침몰선 내에도 마찬가지로 “樞府” 釉瓷器가 출현했으며, 그것들은 모두 元代 中晩期 瓷器 類型의 시대적 특징을 反映했다.

그밖에 침몰선 내의 한국 瓷器 3점의 시대가 우리들이 추측한 중국 瓷器의 연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 한국 瓷器 3점은 모두 高麗靑瓷에 속하고, 그중 2점은 한국 康津窯의 瓷器이고, 1점은 扶安窯의 瓷器이다.

高麗靑瓷에 관해서는, 연구에 의하면 3期로 나눌 수 있는데, 제 2기부터 시작해서, 高麗靑瓷 특유의 象嵌 장식의 기술이 출현하며, 침몰선 내의 高麗靑瓷 3점은 제 3기에 속해야 하는데, 그 시대는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이다.¹⁶⁾

元 大都의 住居遺址 속에서도 高麗靑瓷의 殘片이 발견되었는데, 한 조각은 瓷器 뚜껑의 殘片이고, 한 조각은 罐 혹은 瓶의 口沿 殘片이다. 靑瓷조각 2점에는 모두 象嵌白釉 장식이 있는데, 그중 瓷器 뚜껑 殘片엔 象嵌白釉의 雲鶴紋이 있어, 침몰선 내에서 나온 康津窯에 속하는 靑瓷盤상의 紋飾과 비슷하다. 이것은 바로 침몰선 내의 瓷器가 元 大都

16) 野守健, 〈高麗陶磁の研究〉 1944年版.

遺址에서 출토된 瓷器와 함께 모두 14세기 上半경의 產品임을 설명해 준다.

침몰선 내 瓷器의 연대는 이미 上述한 것과 같고, 그러면 침몰선의 연대는? 즉 이 배는 어느 시기에 침몰한 것인가?

우선 우리는 침몰선 내에 명확한 紀年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현재 아는 바에 의하면, 많은 연구자는 모두 10여만 枚중 시대가 가장 늦은 銅錢——元代的 “至大通寶” 小錢에 근거하여 침몰선의 연대를 推斷한다. “至大通寶”는 元 武宗 至大 3년(1310년)에 주조되었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周知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주의를 더욱 환기하는 것은 침몰선 내의 龍泉靑瓷盤 밑바닥에 새겨진 “使司帥府公用”, 이 여섯字의 의미이며, 그것이 침몰선의 연대를 추단하는데 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使司帥府”는 틀림없이 “宣慰使司都元帥府”의 略稱이다. 〈元史·百官志 七〉에는 “宣慰使司”를 설치한 6개 道 중에 浙東道(慶元路에 있다. 지금의 浙江 寧波)가 있으나, 아직도 “宣慰使司都元帥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생각컨대 〈元史·百官志〉는 〈經世大典〉 “各行省”篇에서 유래한 것이니, 元 至順 3년(1332년) 이전의 일이다. 이때 이미 “宣慰使司都元帥府”를 설치한 것은 7府인데, 廣東道·福建道 兩府가 龍泉窯에서 거리가 별로 멀지 않은 이외에는 그밖의 帥府가 모두 龍泉窯에 와서 瓷器를 주문 제작할 수가 없다. 順帝 이후, 특히 至正 이후에 農民起義가 전국을 席卷하자, 많은 “宣慰使司都元帥府”와 “分元帥府”를 增設했다. 〈元史·順帝紀〉에는 方國珍이 至正 12년(1352년) 8월 台州를 공격했을 때, “浙東元帥 也忒迷失·福建元帥 黑的兒가 격퇴했다”고 기록되었다. 至正 14년(1354년) 9월 方國珍은 또 “元帥 也忒迷失”등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至正 12년 8월에 이미 “浙東道 宣慰使司都元帥府”를 설치했음을 설명해준다. 〈元史·地理志 五〉에도 역시 “浙東道 宣慰使司都元帥府”가 있음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 治所가 慶元에 있음을 註를

달아 설명했다. 寧波는 龍泉·麗水와의 거리가 廣東·福建에 비해 더 가깝고, 여기에 와서 瓷器를 주문·제작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로써 우리는 瓷盤 밑바닥에 새겨진 “使司帥府”가 至正 14년(1354년) “浙東道 宣慰使司都元帥府”의 略稱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어째서 元來 주문 제작된 “使司帥府”專用的 瓷器가 국외로 멀리 항해하는 商船에 흘러들 수 있었는가? 이것은 명백히 浙東道 宣慰使司都元帥府가 철폐된 이후의 사정이며, 따라서 침몰선 상의 瓷器가 실려 운반된 시대는 至正 14년에 비해서도 좀더 늦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至大通寶”錢이 제 공하는 침몰선 연대의 上限에 비해 一步 더 전진한 것이다.

그러면 침몰선 연대의 下限은 결국 어느 시기에 해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元末 至正 27년 이전에 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明初 朱元璋은 엄격한 “海禁政策”을 실행했으니, 〈洪武實錄〉卷70에는 洪武 4년 12월, “方國珍 지배하의 溫·台·慶元 3府에 籍을 둔 軍士 및 秀蘭山の 田糧이 없는 民으로 이전에 舡(船)戶에 充당된 자, 무릇 111,730인은 각 衛에 配속시켜 軍士로 삼고, 이에 瀕海의 백성에게 바다로 私出함을 금지한다”고 했다. 또 同書 卷139에는 洪武14년 10월에 또 명령을 내려, “瀕海의 백성이 海外 諸國과 私通함을 금지한다”고 했다. 당시 浙江 沿海의 局勢는 대단히 긴장된 것이었으니, 元 至正 27년(1367년) 9월, 朱元璋은 方國珍을 토벌하여 台州를 먼저 함락했다. 10월에는 溫州를 함락시켰다. 11월에는 慶元을 정복하여, 方國珍이 바다로 도망해 들어갔다. 12월, 方國珍은 表文을 올려 항복을 청하고, 浙東은 전부 明軍의 소유로 되었다. 그러나 倭寇의 騷擾가 바로 山東으로부터 浙江·福建 沿海로 발전하고, 아울러 明·台 兩州의 70여인을 掠取해 갔다. 이것이 바로 朱元璋이 “海禁政策”을 엄격히 행한 배경이다. 이같은 情況 하에서 至正 27년 方國珍을 토벌한 이후부터, 浙江 沿海의 明州·台州·溫州 3개 항구에는 어떤 商船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몰선이 만일 慶元으로부터 瓷器를 싣고 운반했

다면, 그 연대는 틀림없이 至正 27년 이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元末 方國珍이 浙東에 割據한 시기여야 한다고도 하겠다.

5. 餘 論

이 침몰선이 중국의 어느 항구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는가에 관해서도 역시 많은 사람이 각종의 추측을 했다. 우리는 上文중에서 이미 이 배가 明州(지금의 寧波市)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가정했으나, 이것은 기껏 일종의 假設이니, 그러면 溫州·泉州등 기타 항구에서 출발한 것일 수는 없을까? 현재로는 아직 한발 더 나아가 추측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장래 船體를 引揚한 이후에 船體의 구조와 양식에 의거하여 거듭 토론하기를 희망한다.

침몰선의 목적지는 또 어디인가? 배위에 실은 대량의 중국 瓷器로 보아, 중국에서 한국·일본으로 가는 貿易船이니, 배위에 실은 胡椒는 한국인이 즐기는 調味料이며, 배위에서 발견한 質量이 아주 精美한 高麗靑瓷器 3점은 이 배가 이미 한국에 停泊했으나, 그 최종 목적지는 아님을 설명해준다. 배가 한국을 떠날 때, 모종의 돌연한 사고로 말미암아 海底에 빠졌다. 침몰선 속에서 이미 발견한 대량의 중국 瓷器중에 같은 종류, 같은 양식의 많은 瓷器가 모두 이전에 일본에서 발견되었고,¹⁷⁾ 이러한 瓷器는 일본에서 널리 팔리는 貨物이었으니, 따라서 그 목적지는 일본으로 가는 것임에 틀림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침몰선 내의 瓷器 일부(褐色 斑點을 띤 靑瓷와 影靑瓷器 같은 것)는 일본에서 발견된 적이 없고, 도리어 필리핀등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으므로 이 배는 일본에서 다시 필리핀으로 향해하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다.¹⁸⁾ 우

17) 長谷部樂爾, <日本出土の元明の陶磁>, <日本出土の中國陶瓷>, 東京博物館, 1978年.

18) 三上次男은 1977년 가을에 거행한 1차 討論會상에서 이 論點을 제기했다. 1978년 8월, 그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 1차 學術報告중에서도 이 논점을 서술했다.

리는 이같은 추측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우리는 침몰선 내에 靑花瓷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그 문제에 관하여 몇마디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어떤 이는 이전에 침몰선 내에 靑花瓷器가 보이지 않는 점으로써, 중국 靑花瓷器가 출현한 시기를 推斷하려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推斷 자체가 불합리하니, 침몰선 내에 靑花瓷器가 나오지 않는 것과 중국 靑花瓷器가 언제 출현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여서 하나로 혼돈해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과학적 발굴로 출토된 가장 이른 靑花瓷器는 元代의 것이고, 수량이 매우 적으니, 이것은 靑花瓷器가 당시엔 아직 새 產品이고, 원료·工藝·繪畫와 굽는 기술상으로 대량생산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이 龍泉靑瓷器 및 景德鎮 影靑瓷와는 달라서, 靑花瓷器는 아직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瓷器가 아니고 비교적 珍貴한 器物이었음을 설명해준다. 이로 보아, 침몰선은 중국 浙江 沿岸의 항구로부터瓷器를 운송해 갈 때, 현장에서 龍泉靑瓷器와 景德鎮窯系의 影靑·樞府瓷器를 채집, 구매했음이 실정에 맞는 것이다. 침몰선내의 유물은 아직 전부 引揚을 끝내지는 못했지만, 장래 전부가 완결된 후 여전히 靑花瓷器를 발견할 수 없더라도 결코 奇怪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중국 14세기중엽瓷器 제조업의 實況을 반영한 것이다.

(考古學報 1979年 第2期)